

# 마오쩌둥과 게릴라 전술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0세기 혁명사에서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을 뽑자면, 아마 중국의 마오쩌둥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1920년대 제1차 국공내전부터 항일전쟁 그리고 제2차 국공내전에서 소규모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의 공격에 맞서 드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시킨 인물이다. 마오쩌둥은 1927년 장제스가 난창봉기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자 정강산에서 게릴라전을 통해 국민당군에 맞서 싸웠고, 5차에 걸친 장제스의 대대적인 공세를 무찔렀으며, 1935년 대장정에 성공하여 중국 민중의 민심을 얻었던 인물이다. 1936년 연안에 정착한 이후 마오쩌둥은 게릴라전에 관한 상당히 많은 글들을 남겼다. 이 글에선 마오쩌둥의 게릴라 전술이 무엇인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마오쩌둥의 혁명전쟁의 핵심은 바로 게릴라전이다. 게릴라전이란 상대방 보다 화력이나, 물량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나 세력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이 시작되던 1937년 ‘유격전’이라는 소책자와 ‘항일 게릴라전의 제문제(All the Problems of the Anti-Japanese Guerrilla War)’라는 논문을 썼다. 당시 마오쩌둥은 현 상황과 게릴라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반식민지이며 반봉건적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 바로 지방이다. 엄청난 자원과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는 지방, 지형이 복잡하고 통신 시설이 빈약한 지방,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지구전에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동원전, 즉 ‘정규전’과 게릴라 활동의 응용에 적합한 것이다.”

계속해서 마오쩌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게릴라전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며, 게릴라의 활동이 정규부대의 활동과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정규군의 활동에 전략적이고 필수적인 보조역으로서의 게릴라전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전쟁 전략에 있어서 주된 위치에 놓거나 그것을 정규군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원전 및 진지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즉,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주된 활동은 동원전이고 게릴라전은 보조이다. 중일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

원한 주체는 장제스의 국민당군이였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의 병력은 이것보다 적었다. 국민당군이 정규전을 치르고 있을 때, 공산당군은 게릴라전으로 일본군을 교란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보자면, 마오쩌둥은 전략적으로 중일전쟁에서 이 노선을 잘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마오쩌둥은 3단계 전쟁을 주장했다. 제1단계는 다음과 같다.

“고립되고 험난한 지형에 위치한 지방 근거지의 조직, 강화 및 보존에 전념한다. 여기에서 지원병들을 훈련하고, 사상교육을 하며,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압박시키며’, 그들의 원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명씩 조를 짜서 선동가와 선전가를 파견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식량과 신병,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는 동조자들의 보조대가 각 근거지에 형성된다. 그 과정의 패턴은 음모적이고,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점진적인 것이다.”



제1단계를 거쳐 제2단계에 진입하면, 이 시점부터는 활동에 들어서게 된다.

“사보타주와 테러활동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반역자와 ‘반동분자’는 일소될 것이다. 공격은 약점이 있는 군사 및 치안의 외곽지역에 대해 준비된다. 그리고 약탈한 부분을 매복 기습한다. 이러한 작전의 주 목적은 무기와 탄약, 그리고 기타 필요한 물자, 특히 의료 구급품과 무전기를 획득하는 것이다. 게릴라 부대가 더 나은 장비를 갖추게 되고, 그 역량이 개선되면, 정치활동가들은 곧 확장되는 ‘해방구’에 병합될 주변 지대의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제2단계의 종속적인 역할로 두는 정규 군사활동에 의해 적을 괴멸시키기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단계의 경우 제2단계나 제1단계보다 앞으로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선 지구전 또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글쓴이가 보기에, 마오쩌둥의 이러한 전략은 제1차 국공내전부터 제2차 국공내전까지의 기간을 보았을 때, 1935년 대장정 이후가 제1단계라 볼 수 있고, 중일전쟁 시기가 제2단계라 볼 수 있으며, 제3단계는 제2차 국공내전기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중국문화총서 ③-1

# 모택동 선집

毛澤東

Ⅰ

김승일 옮김



일단 대장정과 그 이후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해방구를 바탕으로 민심 확보 및 선전과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사보타주와 테러 및 여러 무장투쟁을 벌였고, 반동분자를 대상으로 한 투쟁도 벌였으며, 정풍운동과 같은 사상교육을 전당적으로 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중국 공산당은 적을 괴멸시키는 단계에 도달했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일각에서는 중일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병력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며, 전투는 국민당이 거의 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정규전이라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군을 평가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홍군은 일본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전개했고, 이를 토대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전당적인 사상교육을 진행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자신이 주장한 제3단계 전쟁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중국 만주 지역의 경우 항일 무장투쟁은 거의 다 중국 공산당이 했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공산당이 마치 항일을 안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